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터키

Republic of Turkey

2021년10월20일 | 선임조사역(G2 팀장군) 김찬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² 	인구 8,462만 명 (2021 ^f) 	정치체제 대통령제 	대외정책 친러로 외교정책 변화 
GDP 7,960억 달러 	1인당GDP 9,407달러 (2021 ^f) 	통화단위 리라(Turkish Lira) 	환율(U\$기준) 8.21 (연평균, 2021)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8,462만 명의 인구(2021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입지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단순 조립생산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경상수지 적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터키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 국내투자 등 내수가 회복하며 플러스 성장(1.8%)을 기록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리라화 가치 불안 및 투자심리 위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장기 집권을 도모하며 세속주의에 역행하는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독재정치를 추구하여 야권의 반발과 국내외의 비난을 초래한 결과 2019년 3월의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주요 지자체장직을 석권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외교정책으로 미국, EU와의 관계가 냉각된 반면, 최근 러시아와는 군사·경제적으로 서로 밀착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7. 3. 8. 수교 (북한과는 2001. 6. 27.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72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년), 이중과세 방지협정('86년), 투자 보장협정 ('94년), 섬유협정('97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99년),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 협정, 관광협정, 상품무역협정('13년), 사회보장협정('15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5,980,358	5,297,808	5,544,537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부품
수 입	1,188,879	1,189,057	1,317,083	농약 및 의약품, 의류,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186건, 3,245,17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7.5	3.0	0.9	1.8	9.0
소비자물가상승률	11.1	16.3	15.2	12.3	17.0
재정수지/GDP	-2.2	-3.8	-5.6	-5.3	-4.9

자료: IMF, EIU

터키 경제는 2020년 플러스 성장에 이어 2021년 산업생산 및 수출증가 등으로 9.0% 성장 전망

- 2019년에는 3월의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영은행 중심의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은 기업 부문의 대출여력이 감소하고 리라화 가치 변동성 확대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¹⁾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생산 감소와 국내총투자 위축이 동반되어 0.9%의 저조한 경제성장에 그쳤음.
- 2020년에는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리라화 가치 불안 및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터키 경제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은행권의 대출 급증, 가계소비, 국내투자 등 내수가 증가하며, 중국을 제외하면 G20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1.8%)을 기록함.
 - 분기별 경제성장률(yoy): 4.6%('20년 1Q) --> -10.4%('20년 2Q)--> 6.3%('20년 3Q)--> 6.0%('20년 4Q)
 - 은행대출증가율(yoy): 20.2%('20년 1Q) --> 34.3%('20년 2Q)--> 45.0%('20년 3Q)--> 39.0%('20년 4Q)
-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와 8월 산불 및 홍수²⁾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 호조,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 관광산업 회복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yoy)은 기저효과, 가계소비 증가, 자동차 등 제조업 회복세 및 수출 증가 등으로 21.7%를 기록하였으나, 3분기 -0.4% 및 4분기 -0.7% 수준으로 전망됨.
 - 분기별 경제성장률(yoy): 7.4%('21년 1Q) --> 21.7%('21년 2Q)--> -0.4%('21년 3Q^e)--> -0.7%('21년 4Q^f)

리라화 약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년 연속 두 자릿수 전망

- 2019년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골적인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리라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이는 외국인자금의 유출로 이어져 리라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초래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2%를 기록하였음.

1) 2019년 7월 25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1주일 repo 금리)를 24%에서 19.75%로 대폭 인하하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를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음.

2) 터키에서 2021년 8월 남부지역 대규모 산불이 열흘 넘게 발생해 8명이 사망하였고, 북부지역 홍수 피해로 80여 명이 사망함.

국내경제

- 2020년에는 리라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효과, 10년 래 최대 여신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를 코로나19 사태가 상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3%로 전년보다 둔화되었으나,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함.
 -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2.2%('20년 1Q) --> 11.7%('20년 2Q)--> 11.7%('20년 3Q)--> 13.5%('20년 4Q)
- 2021년에는 가뭄 및 홍수 등에 의한 곡물 등의 국제가격 상승, 리라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년 연속 두 자릿수(17.0%)로 물가상승률 목표(3%~7%)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리라화 약세, 높은 국제 곡물가격, 내수 회복 및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7월에 2년래 최고치인 18.9%(yoy)를 기록함.
 -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5.6%('21년 1Q) --> 17.1%('21년 2Q)--> 19.1%('21년 3Q^e)--> 16.5%('21년 4Q^f)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GDP 대비 5% 내외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19년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진에 더하여 3월의 전국 지방선거 및 이와 관련된 정부의 선심성 감세 조치 등으로 인해 GDP 대비 비율이 전년(-3.7%)보다 1.9%p 악화된 -5.6%를 기록하였음.
 - 한편, 터키 정부는 2019년 5월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 충당을 위해, 중앙은행이 긴급 상황에 대비코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400억 리라 상당의 법정준비금인 Lira Reserve Fund를 재무부가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안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주도로 통과되어 법정준비금이 재무부로 이전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제한조치로 재정수입 증가가 둔화되고,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3%를 기록함.
- 2021년에는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경제 활동 촉진 등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9%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정부는 2021년 4월에 2021년 법인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2022년 법인세율을 23%로 결정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40,810	-21,744	6,759	-37,303	-20,962
경상수지/GDP	-4.8	-2.8	0.9	-5.2	-2.6
상 품 수 지	-58,575	-40,726	-16,751	-37,881	-24,105
상 품 수 출	169,214	178,909	182,246	168,401	219,528
상 품 수 입	227,789	219,635	198,997	206,282	243,633
외 환 보 유 액	82,579	71,367	77,042	48,389	61,880
총 외 채	456,562	445,973	440,783	455,849	457,681
총외채잔액/GDP	53.2	57.2	58.0	59.3	57.5
D.S.R.	30.8	27.8	26.6	29.8	22.5

자료: IMF, EIU

수출 증가와 관광업 회복 등으로 총수출액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리라화 약세는 수입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입품 수요를 위축시키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다소 증대시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상품수입이 감소하고 상품수출은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2018년 GDP 대비 -2.8%의 적자에서 2019년에는 GDP 대비 0.9%의 흑자로 개선되었음.
- 2020년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상대국의 수입수요 급감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국가간 이동 제한에 따른 관광 부문의 타격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급감 등으로 총수출액(상품수출 + 서비스수출 + 소득수취)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1년 만에 GDP 대비 -5.2%의 적자로 다시 전환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 수출상대국의 수입수요 급감에 따른 수출 감소와 함께 수입 증가 등으로 터키 상품수지 적자는 2019년 -168억 달러에서 2020년 -379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터키의 주요 수출품인 차량 수출은 2019년 269억 달러에서 2020년 22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 2월 EU 집행위원회의 철강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따라 터키의 철강 수출도 2019년 100억 달러에서 2020년 8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한편, 터키 상품 수입 중 1위 품목인 금 수입은 2019년 113억 달러에서 2020년 252억 달러로 124% 증가함.

대외거래

[그림 1] 터키 차량 및 철강 수출액 추이

단위: 미 달러



자료: UN.

[그림 2] 터키 금 수입액 추이

단위: 미 달러



자료: UN.

- 2021년에는 무역상대국의 경기 개선으로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함께 관광업 회복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총수출액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373억 달러에서 2021년 -210억 달러(GDP 대비 -2.6%)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2021년 7월 중 외국인 방문객은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등을 중심으로 436만 명으로 전년동기(93만 명)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1~7월 외국인 방문객도 1,009만 명으로 전년동기(544만 명)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총수출 증가와 FDI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2.7개월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17년 월평균수입액의 약 3.7개월분에서 2018년 3.2개월분으로 위축되다가 2019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힘입어 3.8개월분으로 반등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 전환하고, 중앙은행이 리라화 가치 방어를 위해 연초부터 리라를 매입하고 외환을 방출하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지속한 결과, IMF에 따르면 터키의 외환보유액은 2019년 말 770억 달러에서 2020년 말 484억 달러로 감소하여 2020년 터키의 월평균수입액의 2.4개월분에 불과하였음.
- 아울러 에르도안 행정부에 의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터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8년 128억 달러에서 2019년 9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위축까지 겹쳐 79억 달러로 감소함.
- 2021년에는 터키의 총수출액이 전년대비 2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FDI 유입도 소폭의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터키 외환보유액은 2020년 484억 달러에서 2021년 619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2020년 2.4개월에서 2021년 2.6개월 수준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중앙은행은 2021년 6월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기존 24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 8월에는 우리나라와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함. 또한, IMF는 2021년 8월 6,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을 실시함에 따라, 터키 중앙은행은 쿼터(지분 약 1%)에 해당하는 약 64억 달러 규모의 SDR을 배분 받아 외환보유액이 증가함.

외채상환능력

총수출 증가에 힘입어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하락 등 외채상환능력 전년 대비 개선 전망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터키 리라화 가치하락에 따른 달러화 표시 GDP 규모 축소 등으로 2017년 53.2%에서 2019년 58.0%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2020년에도 리라화 가치하락 지속으로 달러화 표시 GDP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59.3%로 상승세가 지속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도 2017년 145.5%에서 2019년 159.5%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2020년에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급감 및 단기외채 증가 등으로 276.9% 수준으로 크게 상승함.
- D.S.R.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수준인 18~20%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나, 외채원리금 상환액 감소로 2017년 30.8%와 2018년 27.8%에 이어 2019년 26.3%로 하락함. 2020년에는 총수출 감소로 D.S.R.이 29.8%로 상승하였음.
- 아울러 2020년 총수출이 -16.7% 감소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9년 174.8%에서 2020년 203.2%로 상승하는 등 2020년에 터키의 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되었음.
- 한편, 2021년에는 총수출이 2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203.2%에서 171.4%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D.S.R.도 2020년 29.8%에서 22.5%로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20년 59.3%에서 57.5%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도 2020년 276.9%에서 227.5%로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 터키 2021년 1~7월 중에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의 터키 부동산 구매, 중앙은행의 통화스왑 계약, 정부³⁾ 및 민간부문 차입, 터키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등 자본 유입 증가에 따라 터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증가분은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함.
- 다만, 리라화 가치 하락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 가중을 초래하여, 터키의 외채상환능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터키 정부는 2021년 7월 초에는 15억 유로 규모의 6년 만기 국제채를 발행하였음.

구조적취약성

산업구조 자체는 다변화되어 있으나, 제조업 부문은 단순 조립 저부가가치 중심

- 터키는 원자재 수출이나 관광 등 특정 분야에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인근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특히 터키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럽 지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공장을 터키에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터키 소재 외국 제조기업은 자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터키의 생산공장에서 이를 조립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제조업 중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부문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조립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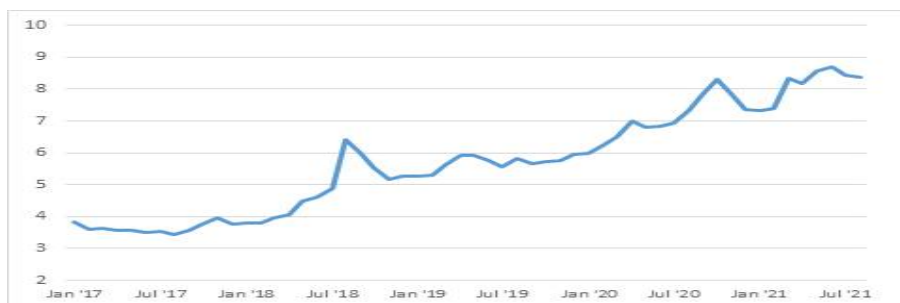
높은 수준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를 이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물가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에너지 수입비중은 경상수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 터키 전체 상품수입액에서 원유·천연가스 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7%에서 2019년 21.2%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 한편, 터키는 2020년 8월 흑해에서 4,05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6월에도 흑해에서 추가로 1,350억㎥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함. 터키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가스를 추출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리라화 가치는 하락 추세이며 향후에도 경상수지 적자 및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하락 가능성

- 터키 리라화는 중앙은행의 외환유입 포트폴리오 구성의 취약성(국내 은행들의 외화예금에 의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에르도안 행정부의 과도한 침해, 외환보유액 감소 등의 요인들로 인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신흥국 통화들 중 그 가치가 불안정한 편이었음.
- 2021년에도 터키 정부 정책의 낮은 예측가능성, 중앙은행 독립 관련 우려, 미국 및 EU와의 외교적 갈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의존 등으로 리라화 가치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리라화는 터키 경상수지 적자 및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안고 있음.
- 미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2020년 11월 초 8.5153으로 상승한 이후 2021년 2월 중순 한때 6.9652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9월 말 8.9236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그림 3] 미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환율 추이



자료: EIU.

성장잠재력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 보유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은 물론 러시아와 중동의 유럽행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의 역할도 가능함.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 보유

- 터키는 유럽 국가 중 1위 규모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2021년 기준 8,462만 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노동력이 풍부하여, 고령화가 진행중인 동유럽 제조업 기지를 대체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

- 터키는 1995년 EU와 관세동맹 체결 등으로 과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한 바 있으나, 에르도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2020년 FDI 유입액은 78.8억 달러로 2015년(189.8억 달러)의 41.5%에 그쳤음.

- FDI 유입액(억 달러): 189.8('15년)-->136.5('16년)-->109.7('17년)-->128.4('18년)-->92.9('19년)-->78.8('20년)

정책성과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 지속, 리라화 가치 하락 등으로 에르도안 행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고조

-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등 터키의 경제정책 전반에 깊이 간여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 간 리라화 가치가 하락을 거듭하며 10%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미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자주 초래하고, 이것이 상대국들의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져 터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침해는 경제불안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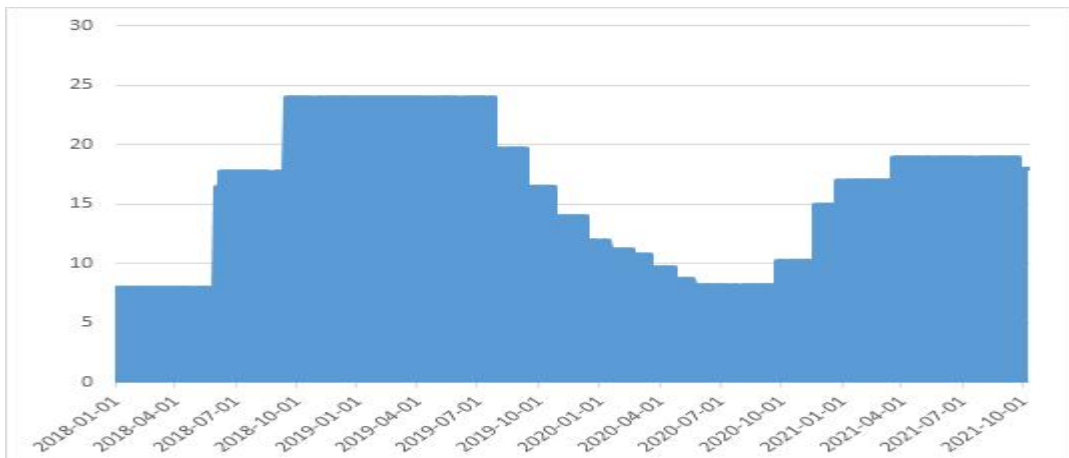
- 2019년 7월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6년 4월 임명되어 당시 잔여임기를 약 9개월 남겨둔 체틴카야 중앙은행 총재를 대통령령으로 해임하고 신임 총재로 우이살 부총재를 임명하였음.
- 체틴카야 前총재는 2018년 8월 미국인 목사 투옥과 관세 갈등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 되면서 리라 가치가 폭락하자 리라 가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1주일물 repo 금리)를 6월 1일(8% → 16.5%), 6월 8일(16.5% → 17.75%) 및 9월 14일(17.75% → 24%)에 걸쳐 대폭 인상하고,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음.

4) 이슬람 국가의 특성상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2018년 세계은행 기준 1.49%)과 출산율(2017년 세계은행 기준 가입여성 1명당 2.034명의 신생아 출산)을 기록하고 있음.

정책성과

- 총재 교체 후 2019년 7월 26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4%에서 19.75%로 대폭 인하하고, 이후 9월 13일(19.75% → 16.5%), 10월 25일(16.5% → 14%) 및 12월 13일(14% → 12%) 연속 인하하였음. 터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 및 물가상승률 전망 개선을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우이살 총재가 경기부양을 원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로 평가됨.
- 터키 중앙은행은 2020년 들어서도 기준금리를 1월 17일(12% → 11.25%), 2월 20일(11.25% → 10.75%), 3월 18일(10.75% → 9.75%), 4월 23일(9.75% → 8.75%), 5월 22일(8.75% → 8.25%) 등 5개월 연속 인하하여 2018년 6월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환원함.
-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오히려 터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터키 주식시장과 리라화 환율에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에 시장의 금리 인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터키 중앙은행은 2020년 5월 22일 이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리라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자 중앙은행은 2020년 9월 24일 기준금리를 10.25%로 인상함.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11월 초 우이살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아으발 前재무장관을 신임 총재로 임명하였으며, 터키 중앙은행은 2020년 11월(10.25% → 15.00%) 및 12월(15.00% → 17.00%), 2021년 3월(17.00% → 19.00%)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3월 기준금리 인상 직후 아으발 총재를 임명 4개월 만에 전격 해임하고, 신임 중앙은행 총재에 친정부 칼럼니스트 출신의 전 여당 국회의원 카브치오을루를 임명하였음. 터키 중앙은행이 2021년 9월(19.00% → 18.00%)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미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Bloomberg 기준 9월 29일 8.9236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10월 18일에는 9.3344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리라화 가치의 하락 추세가 지속됨.

[그림 4] 터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 BIS.

정치안정

에르도안 대통령, 독단적 국정 운영과 장기 집권 도모 등으로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

- 이스탄불 시장(1994~98년)과 국무총리(2003~14년)를 거쳐 2014년 8월 집권, 2018년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재선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확립한 정교 분리의 세속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슬람주의를 내세워 종교적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발생하였으나 6시간 만에 진압된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정부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자신의 반대파로 분류된 이들에게 쿠데타 가담 혐의를 씌워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여 사법부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였음.
-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여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음.
- 개헌의 주요 내용은 총리직을 폐지하고 대신 부총리직을 신설하며,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행정명령 발효, 의회의 승인 없이 부통령과 장관 임명,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리는 물론 판·검사 등 사법부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절대 권력을 허용하고 3권분립을 훼손하였음.
- 또한 대통령은 대선 및 총선을 조기 시행할 권한을 갖고, 대선 승리 시 중임할 수 있으며, 중임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6월 조기 대선 승리로 중임 조항에 따라 2028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임기 만료 직전에 조기 대선을 다시 실시할 경우 2033년까지 재임할 수 있음.

2018년 6월 총선 결과, 여권 연대가 의회 의석의 과반수 차지

- 에르도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자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주의자운동당(MHP)과 함께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보수 성향의 여권 연대 People's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음. 한편, 중도좌파 공화인민당(CHP)은 2017년 11월 창당한 중도우파 좋은당(IYI)과 함께 야권 연대인 Nation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으며, 친(親)쿠르드족 성향의 인민민주당(HDP)도 의회에 진출해 있음.
- 2018년 6월의 총선 결과 터키 의회(총 600석)는 People's Alliance가 344석(AKP 295석 + MHP 49석)으로 과반수인 57.3%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직전 선거 결과인 357석보다 13석 감소한 것임. 한편, Nation Alliance는 직전 선거보다 55석 증가한 189석(CHP 146석 + IYI 43석)으로 31.5%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으로 선거에 임한 HDP는 직전 선거보다 8석 증가한 67석을 얻어 11.2%를 차지하였음.

정치안정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여권 연대가 우위 유지, 주요 5대 도시 시장직은 야당이 석권

- 2019년 3월 31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 결과 AKP와 MHP의 여권 연대 People's Alliance가 전체의 51.67%(AKP 44.42%, MHP 7.25%)를 득표하며 기존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였음. 한편, CHP와 İYİ의 야권 연대 Nation Alliance는 37.53%(CHP 30.07%, İYİ 7.46%)를 득표하였음.
- 여타 정당과의 연합 없이 단독으로 선거에 나선 HDP는 쿠르드족이 밀집한 동부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결과 4.22%를 득표하였으며, 기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6.58% 득표에 그쳤음.
- 81개 자치단체 州都(province capital) 시장 선거에서는 AKP가 39개, CHP가 21개, MHP가 11개, HDP가 8개, TKP(터키공산당)가 1개, 무소속 후보가 1개 도시의 시장직을 각각 획득하였음. 그러나 야당인 CHP 후보들이 수도 앙카라,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아 등 주요 5대 도시의 시장직을 석권하며 기존의 14개 도시보다 7개 증가한 21개 도시의 시장직을 차지한 반면, AKP는 기존의 47개 도시보다 8개 감소한 39개 도시의 시장직을 차지하는 데 그쳤음.
- 앙카라 시장직은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정의개발당 후보가 낙선하였음. 이즈미르는 CHP가 시장직을 유지하였으며, 안탈리아는 CHP가 AKP로부터 시장직을 탈환하였음. 특히, AKP에서 CHP로 시장직이 넘어간 경우는 앙카라, 이스탄불, 안탈리아 포함 8개 도시인 반면, CHP에서 AKP로 시장직이 넘어간 경우는 2개 도시에 불과하였음.

2019년 8월 친(親)쿠르드 성향의 HDP 소속 시장 3명 해임

- 터키 내무부는 2019년 8월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디야르바크르 시(아드난 셸추 므즈라크르 시장)와 마르딘 시(아흐메트 튀르크 시장), 반 시(베디아 외즈곡체 에르탄 시장)등 3개 도시 시장을 해임하고 각 시가 소속된 주의 도지사가 시장직을 겸임한다고 발표하였음.
- 내무부는 이들이 쿠르드족 분리·독립주의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울러 테러리스트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거리에 테러 조직원의 이름을 붙이는 등 테러 단체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하였음.
- 이들은 모두 친(親)쿠르드계인 인민민주당(HDP) 소속으로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민선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5개월 만에 시장직을 박탈당하였음.
- 터키 정부와 여당은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HDP가 PKK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으나, HDP는 PKK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음. 1978년 창설한 PKK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목표로 폭력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테러를 자행하여, 터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PKK의 테러로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 터키 정부는 앞서 2016년 7월의 실패로 끝난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HDP 소속 시장 수십 명을 PKK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한 바 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9년 3월 지방선거 직전에 HDP 후보들과 PKK 간의 연관이 드러날 경우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또 다시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해임의 실체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정치안정

이스탄불 법원, 2019년 9월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국가원수 모독 혐의로 중형 선고

- 2019년 9월 6일 이스탄불 법원은 CHP의 이스탄불 지역당 대표인 여성 정치인 카난 카프탄즈오을루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에 동조하여 국가기관과 국가원수를 모독한 혐의”로 징역 9년 8개월 20일을 선고 하였음. 법원은 카프탄즈오을루가 2012~17년 중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짐.
- 카프탄즈오을루는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CHP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후보의 이스탄불 시장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며, 이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카프탄즈오을루에 대한 보복으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졌음.

AKP 주역들의 탈당 및 신당 창당으로 집권세력 분열 표면화

- 2019년 지방선거 결과 AKP가 이스탄불 등 주요 대도시에서 패배하여 AKP의 위신이 추락하자, 그동안 AKP 내부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 3권 분립 약화, 과도한 종교적 보수주의 등에 반발해온 주요 정치인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을 창당하며 AKP의 내부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음.
- 먼저 AKP의 중진인 알리 바바잔(Ali Babacan)은 2019년 7월 “자신이 믿는 원칙·가치·이상과 현 정부의 정책 간의 심각한 차이”를 이유로 AKP를 탈당하고 2020년 3월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진보당(DEVA)을 창당하였음. AKP의 또 다른 중진인 아흐메트 다부토을루(Ahmet Davutoğlu)도 2019년 9월에 AKP를 탈당하고, 12월 보수 성향의 미래당(GP)을 창당하였음.
- GP와 DEVA는 2018년 터키 총선 이후 창당되어 의회에서의 의석은 GP가 0석, DEVA가 1석에 불과하나, 2023년 예정된 터키 총선 전까지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AKP 소속 의원들의 영입에 성공하고, 이스탄불 등 대도시에 밀집한 세속주의 지지자들에게 AKP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어필할 경우 AKP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독일의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는 2020년 5월 보고서를 통해 GP와 DEVA가 AKP의 기존 지지자들 중 적은 부분만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더라도 AKP의 위상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SWP 보고서는 다부토을루가 AKP 탈당 전까지 터키의 중동 지역(특히 시리아) 분쟁 개입, 2015년 6월의 총선 직후 터키 내 쿠르드족 거주지에서의 갈등 증폭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인 반면, 바바잔은 터키의 경제 호황기에 터키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및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함. 다부토을루의 GP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AKP 지지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바바잔의 DEVA가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물가 상승, 리라화 약세, 만연한 부패 등으로 터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음. 또한, 2021년 8월 산불 및 홍수 관련 에르도안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AKP)이 정치적 압력을 받았으며,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20년 4월 48%에서 2021년 5월 32%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 41% 수준을 기록함.

사회안정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론 억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2016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진압된 후(동 쿠데타는 실제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한 정부측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지속) 언론·출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특히 터키 정부가 2016년 군부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르 귄렌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서적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수십만 권 이상 수거·소각하거나 출판을 금지하는 '터키판 분서갱유'까지 자행하는 여론 억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2016년에는 수학 교과서 1종에 실린 수학 문제들 중 'F지점에서 G지점까지'라는 문구가 귄렌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인 F와 G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이 교과서의 출판을 금지되었으며, 2018년에는 귄렌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주의 이름이 내용에 포함된 교과서 180여만 권을 전량 파기하고 수정 인쇄하는 등 상식 밖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

사회와 언론의 자유도는 전 세계에서 하위권

- 미국 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와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하는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는 모두 터키를 '사회와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음.
- Freedom in the World 2021 보고서에서 터키는 사회적 자유도인 Global Freedom Scores(32점: "부자유"(Not Free))와 인터넷 사용 자유도인 Internet Freedom Scores(34점: "부자유") 모두 조사대상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⁵⁾
- 한편,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에서도 터키는 에르도안 집권 이후 언론 자유 순위가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180개 국가 중 153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국경없는 기자회의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상의 터키의 순위

연도	순위/전체	점수*	최하위 국가
2017년	155/180위	52.98점	북한(84.98점)
2018년	157/180위	53.50점	북한(88.87점)
2019년	157/180위	52.81점	투르크메니스탄(85.44점)
2020년	154/180위	50.02점	북한(85.82점)
2021년	153/180위	49.79점	에리트리아(81.45점)

* 점수(범위 0~100점)가 낮을수록 언론자유도는 높음.

5) ① Global Freedom Scores : Political Rights(정치적 권리) 16/40 + Civil Liberty(시민 자유) 16/60 = 32/100
 ② Internet Freedom Scores : Obstacle to Access(접근 방해) 15 + Limits on Content(컨텐츠 제약) 10 + Violations of User Rights(사용자 권리 침해) 9 = 34/100
 * 평점 구간 : 100~70점 = "자유"(Free) / 69~40점 : "부분적 자유"(Partly Free) / 39~0점 : "부자유"(Not Free)

사회안정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이 인접국인 터키로 대거 유입되어, 터키 내에 약 3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 난민의 유입은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난민 유입 지역의 물가 상승, 난민에 대한 반감 증대 등 복잡한 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한편, 시리아 등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들이 일자리가 집중된 이스탄불로 계속 몰려들자,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 이스탄불에 체류하는 난민들을 적발하여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이스탄불에만 약 55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스탄불 시의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터키 정부측의 입장임. 터키 정부는 2019년부터 난민들에게 이스탄불 거주를 위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2011년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중동,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난민이 대거 유입으로 몰려들자 EU는 2016년 터키와 협정을 체결, EU 회원국인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들을 터키에 재수용하는 대가로 6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2020년 2월 말 터키 정부는 EU의 추가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선언하며 유럽으로 향하는 국경을 개방하였으며, EU는 2021년 6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터키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키로 함.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 문제는 안보의 지속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1978년 설립된 터키 내 쿠르드족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본거지로 삼고 테러 활동을 통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여, 터키 정부에 의하면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터키 군인·민간인이 PKK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하였음.
-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인구 약 3,000만 명)인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분포해 있으며, 터키 남부에 1,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여 터키 내 최대 소수민족임. PKK는 현재 터키는 물론 미국과 EU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터키군은 PKK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2019년 5월과 7월에도 이라크 북부에서 PKK 전투원들의 자국 침투를 막기 위한 '발톱 작전'을 벌였음. 아울러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군사조직과 내전이 지속 중인 시리아 내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해서도 2019년 10월 군사 공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터키 정부는 향후에도 쿠르드족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측되나, 독자적인 민족 국가 수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쿠르드족의 존재는 터키의 안보에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관계

미국인 브런슨 목사 구금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의 본격적인 시발점

- 터키 정부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꼽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르 귤렌(현재 미국에 망명 중) 및 터키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 (PPK)과 결탁하여, 정치적·군사적 기밀로 분류된 국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2016년 7월 발생 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터키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터키의 이스미르에 부인과 함께 20년 간 거주하며 개신교 교회를 운영해온 브런슨 목사는 2016년 10월 터키 경찰에 체포, 구금되어 간첩 및 테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터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하였음.
- 그러나 개신교 목회자인 브런슨 목사가 이슬람 성직자인 귤렌과 결탁하여 터키 정부의 전복을 도모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며, 실제로는 미국에 망명 중인 귤렌을 송환하라는 에르도안 정부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귤렌과 맞교환할 인질로 브런슨 목사를 체포, 구금했다는 분석이 우세함.
- 아울러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운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하는 종교적 보수층의 타 종교(특히 카톨릭,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종파들)에 대한 적대감도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부가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 대폭 인상 등 경제제재를 발동하자, 터키 법원이 2018년 10월 그의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브런슨 목사는 구금 2년 만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귀국하였음. 한편,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6일부로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5월 17일부터 터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여 터키와의 관계는 계속 냉각되었음.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민병대 공격에 따른 미국의 터키 경제제재로 관계 악화

- 2019년 10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전 중인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지역 주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하자, 터키군은 10월 9일 이 지역의 쿠르드족 민병대를 소탕하고 폭 30km, 길이 440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이주시키겠다고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음.
- 시리아 내전에서 서방 국가들에 협조해온 쿠르드족 민병대를 미국이 배신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미국 정부는 2019년 10월 14일 터키와 진행 중이던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터키 국방장관, 내무장관, 에너지장관을 제재대상에 올리는 한편, 터키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다시 50%로 인상하였음.
- 2019년 10월 17일 미국의 중재로 터키와 쿠르드 민병대 간에 5일 간의 휴전이 합의되고, 10월 22일 터키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러시아와 쿠르드족 민병대 철수, 안전지대의 터키-러시아 공동 관리 등을 조건으로 공격 중단에 합의하고 휴전을 선언하였으며, 10월 23일 미국은 대터키 제재를 철회하였음.
- 결과적으로 이는 러시아에게 중동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터키와의 관계 강화라는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터키와 미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음.

국제관계

러시아제 미사일 방공 시스템 S-400 도입, Halkbank 소송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

- 터키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터키 정부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에 난색을 보여 구매가 무산되자 2017년 4월 러시아 정부와 S-400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터키는 미국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2~25일 러시아로부터 S-400 1차분을 인수한 데 이어 8월 27일 2차분 인수를 개시하였음. 한편, 터키 국방부는 2019년 9월 초 터키 공군 요원들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S-400 운영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음.
- 이에 미국 정부는 터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임에도 NATO의 최대 적인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도입했다고 비판하며, 2019년 7월 16일 터키를 자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배제하였음.
- 터키는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F-35 기종의 생산에 조력하고 구매를 계획하였으나, 미국은 터키가 S-400과 F-35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F-35의 민감한 정보체계가 S-400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여 F-35의 대 터키 수출을 금지함.
- 아울러 미국에서 F-35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터키 공군 조종사들과 엔지니어들을 출국시키며, NATO 회원국들의 부품 공급망에서 터키를 제외(터키는 900개 이상의 F-35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 터키 정부가 2020년 8월 러시아와 S-400의 추가 도입계약 체결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터키군이 2020년 10월 흑해 인접 지역에서 S-400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 국무부는 "S-400 발사는 NATO 회원국이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터키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수준의 경고를 보냄.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9월 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투기 및 잠수함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추가 구매 의지를 재확인함. 미국에 대해서는 약속한 F-35 전투기를 인도하거나 구매대금 14억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2020년 10월 미국 뉴욕 주 맨해튼 지방법원이 터키 국영은행인 Halkbank가 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의 적용대상이므로 미국 검찰의 기소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Halkbank측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 2019년 10월 트럼프 행정부의 대 터키 경제제재 발표 직후,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2012~16년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어기고 이란이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수익을 금과 현금의 형태로 확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Halkbank를 기소한 바 있음.
- 미국 검찰은 터키와 이란 고위 당국자들도 돈세탁 작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으며, Halkbank의 아틸라 부행장은 대이란 제재 회피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28개월간 복역한 뒤 추방되었으나, 2019년 10월 터키 이스탄불 증권거래소 CEO로 임명되었음.

국제관계

동지중해 키프로스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탐사 문제로 EU와의 관계도 악화

- EU는 유럽으로 유입된 중동 지역 난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터키와 협력해 왔으나, 2016년 7월의 쿠데타 불발 이후 반대 세력의 숙청과 여론 억압, 사형제 재도입 등 에르도안 행정부의 비민주적 행태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11월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이후 터키와 EU 간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인권, 정교분리,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등을 계속 거론하며 자신을 압박하는 EU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어,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음.
- 최근 터키는 지중해 동부의 섬나라 키프로스 북부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탐사 문제로 EU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1974년 이후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⁶⁾이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미국 ExxonMobil 등 서방 에너지 기업들과 손잡고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 개발⁷⁾을 추진하여 2017년 7월 가스전 탐사 시추를 개시하자, 북부를 지원하는 터키는 이에 반발하여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음.⁸⁾
- 실제로 2018년 2월 터키 해군이 키프로스 해역으로 이동하던 Eni의 가스 시추선을 군함을 동원하여 저지하였으며, 동년 11월 터키 정부는 이 해역에서 서방 기업들의 자원 탐사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인 데 이어 2019년 2월 키프로스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가스 탐사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 터키는 2019년 5월 북부 키프로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부 키프로스 주변 해역에서 가스 탐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키프로스와 그리스, EU는 즉각 반발하며 터키의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터키는 8월과 10월에 연이어 탐사 작업을 강행하여 EU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접어들었음.
- EU는 2019년 7월에 터키와의 종합 항공운송 협정 체결 협상 중단, 유럽투자은행(EIB)의 터키 내 대출 관련 사항 전면 재검토 요청, 터키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2020년 프로젝트에 배정한 1억 4,480만 유로의 지원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였으며, 11월에 터키의 가스 탐사와 관련된 개인·단체에 EU 여행 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결정함. EU는 2020년 12월에 기존 제재 명단에 터키의 에너지 관료를 추가하는 등 제재 명단을 확대함.

6) 키프로스는 1974년 7월 그리스와의 합병을 주장하는 남부의 그리스계 육군 장교들의 주도로 쿠데타가 발생하자, 터키는 터키계 주민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키프로스를 침공하여 북부를 점령한 결과 8월 남북으로 분단되었음. 이듬해인 1975년 북부가 자체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데 이어 1983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RNC)이라는 국명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래 키프로스는 분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은 2004년 5월 EU 회원국이 되었고 2008년 1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가 되었음.

7) 에너지 컨설팅 기업 Wood MacKenzie는 지중해 동부 해저에 약 3.5조 m³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10년 간 전 세계에서 새로 확인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이나, 관련국 간의 영해(領海) 분쟁 등으로 개발이 저조한 상태임.

8) 키프로스 공화국 정부에 의하면,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키프로스 EEZ의 44%를 자국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TRNC도 나머지의 25%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하락세이며 2021년 6월 말 기준 0.07%로 낮은 수준

- 2021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터키 앞 여신 원리금 잔액은 278억 9,272만 달러(단기 42억 8,220만 달러, 중장기 236억 1,052만 달러)이며, 이중 연체액은 2,079만 달러(단기 80만 달러 및 중장기 1,999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07%로 낮은 수준이며 2020년 6월 말 기준 수치(중장기 3,243만 달러, 전체 잔액의 0.13%)에 비해서 하락함.
- 연체비율(%): 0.27%('19년 말) --> 0.13%('20년 6월)--> 0.08%('20년 말)--> 0.07%('21년 6월)

주요 ECA들은 터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

- 2021년 10월 18일 현재 미 수은(US EXIM),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터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함.
- 단, HERMES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 모두 건별 심사를 통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IMF는 터키의 외채지속가능성이 중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IMF는 터키의 Country Report 최신호(2021.6월)에서, 터키의 외채상황에 대한 기본전망(baseline)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9년~2020년 약 60% 내외에서 2026년까지 약 40%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제시하였음. 다만, 리라화 가치 하락과 대외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가 외채상환 능력에 계속 중요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1.01)	5등급(2020.01)
S & P	B+ (2018.08)	BB-u(2018.06)
Moody's	B2 (2020.09)	B1 (2019.06)
Fitch	BB-(2021.08)	BB-(2019.07)

Fitch는 터키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로 유지

- Moody's는 2019년 6월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그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터키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 9월 ①대외취약성의 증가 및 국제수지 위기 가능성 고조, ②정부의 지속적 시장개입에 따른 정책 신뢰도 약화 및 정부의 대응 의지·능력 결여, ③신용등급을 뒷받침해온 재정여력의 약화 등을 이유로 동 신용등급을 B1에서 B2으로 재차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였음.
- 한편, Fitch는 2019년 7월 중앙은행 총재 해임으로 나타난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그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 등을 이유로 터키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Fitch는 2021년 8월에는 터키의 낮은 통화정책 신뢰도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 강한 성장 동력 등을 감안하여 터키 신용등급을 BB-로 유지함.

- 터키 경제는 2020년에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리라화 가치 불안 및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 국내투자 등 내수가 회복하며 플러스 성장(1.8%)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가계소비 호조,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 관광업 회복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 도입 후 3권분립을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며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를 노골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됨. 이에 따라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주요 지자체장직을 석권하고, 여당 중진들이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등 집권세력의 분열이 표면화됨. 또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21년 5월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음.
- 브렌슨 목사 억류 사건,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체계 도입, 키프로스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탐사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EU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터키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등을 초래하여 불확실성 증폭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리라화 환율 동향과 외채상환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